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16년 포어 §

주님, 우리로 화해하게 하소서
(교후 5:18-21, 창 33:1-4)

十 행동 지침十

- 1. 말씀과 비전으로 하나되는 교회
- 2.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
- 3. 기도와 전도의 사명을 다하여 부흥하는 교회

발행인 : 박노철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www.seoulchurch.or.kr

☪ **수요설교**

아픈 만큼 성장합니다

(욘 23:8-10)

성경은 욘을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이며, 그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욘에게 자녀의 축복과 동방에서 그를 따라 올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많은 재물의 복과 건강함의 복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의 시기로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이 다 사라지고, 자녀들이 하루 동안에 다 죽고 맙니다. 성경은 짧게 욘이 당한 고난과 아픔을 기록하고 있지만 이것은 결코 한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욘은 결코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죄를 범하지 않았 습니다. 욘의 고난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의 몸은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고, 온 몸이 피와 고름으로 뒤덮혔습니다. 모든 재산과 사랑하는 자녀들을 다 잃고, 온 몸에는 악성 피부병으로 덮 혀 있는 욘에게 그의 아내는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말합 니다.

“욘이 일어나 겹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 울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욘이 범죄하지 아니하 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욘 1:20-22).

욘이 드린 예배는 인생의 근본 뿌리에서 나오는 가장 위대한 예배였습니다. 욘은 “내가 복을 받든지, 내가 화를 당하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죽든 지 살든지 화를 당하든지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셔야 하고 하나님은 찬양과 경배 와 존귀와 높임을 받으셔야 한다” 라고 고백합 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어떤 고난과 환난과 역경 과 시험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만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시험만 허락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 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 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 라”(고전 10:13).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 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 같이 되어 나오리라”(욘 23:10).

욘이 모든 시련과 시험을 극복할 수 있었던 이 유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욘은 두 가지, 곧 아무 리 캄캄하고 암담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라도 그 가 가는 길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것과 지금은 풀무불을 지나는 고통 가운데 죽을 것 같아도 단련 하신 후에는 정금과 같이 되어 나올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시험을 이겨낸 욘에게 하나님은 이 전보다 더 큰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의 인생에는 누구든지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픈 만큼 성장하 고, 시련을 통과한 만큼 정금같이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 절히 소원합니다.

We Can Grow As Much As we Feel Sore

(Job 23:8-10)

The Bible says, “Job is clear, honest, fearing God, and a man left from evil.” It means that this is the greatest compliment that can be received from God and he was recognized by God. God blessed him with children, gave blessings of property that could not be more compared than any other man, and give him stout health.

And there, he lost all of his wealth due to the evil, the Satan’s jealous in a day, and all of his children died for a day. Though the Bible shortly recorded the sufferings and pain that he underwent, this can never be borne by just one person. Nevertheless, Job never denied God and did not commit a crime. His suffering did not finish with this here. He got a boil from the sole of his food to the top of his head and covered with the blood and pus. His wife said, “You rather insult God and die,” to Job who lost his wealth, his children and covered with vicious skin disease.



박노철 목사
(서울교회 담임)

“At this, Job got up and tore his robe and shaved his head. Then he fell to the ground in worship. And said “Naked I came from my mother’s womb, and naked I will depart. The LORD gave and the LORD has taken away; may have the name of the LORD be praised.” In all this, Job did not sin by charging God with wrongdoing” (Job 1:20-22).

The service that Job worshipped God was the greatest worship service that came out from the fundamental root of his life.

Job confesses, “Whether I am blessed or suffered, God is my God,” “Whether I die or not, or undergo sufferings, God must be glorified from me, praised, worshipped, and be high and no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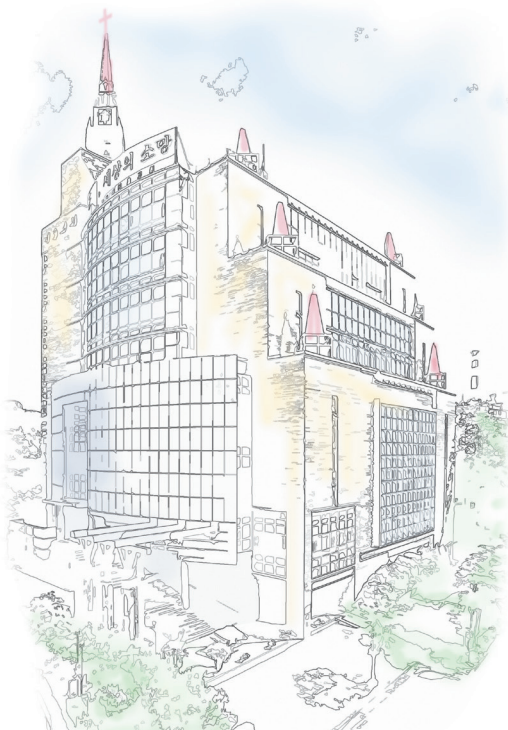
Though we undergo any hardship, suffering, and difficulty in our life, such things can occur to us within the limit that God permits. It means that God permits us to bear the temptation.

Therefore, the Apostle Paul says like this, “No temptation has seized you except what is common to man. And God is faithful; he will not let you be tempted beyond what you can bear. But when you are tempted, he will also provide a way out so that you can stand up under it.” (1 Cor 10:13).

My beloved Christians,
“But he knows the way that I take; when he has tested me, I will come forth as gold” (Job 23:10).

The reason why Job overcame the trial and temptation is his faith. He had two reasons: one is that no matter how dark and gloomy time he spent, God knew the way he went, and the other is that after God trained him through the sufferings that he got by passing through the blazing furnace. He believed that He became

like gold. .God blessed Job who overcame the temptation much more than before. In our life, anyone undergoes sufferings. But we can grow as much as we feel sore, and we become like gold as much as we pass test. I sincerely pray that all of us will be full of this grace in the name of Jesus Christ.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절

주일예배 시 - 성찬식 거행 / 찬양예배 시 - 추수감사절 감사찬양 11월 27일, 교회설립 25주년 기념주일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절이다. 주일 I, II, III 부 열 장로)의 절기 찬양이 있다. 감사와 기쁨으로 준비 예배시간에는 성찬식을 거행하며 주님의 삶과 피를 하는 추수감사절이 되도록 기도한다. 기념한다. 또한 추수감사헌금을 봉헌한다. 11월 27일(주)은 교회설립 25주년 기념주일이다. 찬양예배시간에는 가브리엘 찬양대(대장 : 최형 감사와 기쁨으로 준비하기 바란다.

2017 수능 당일 학부모 기도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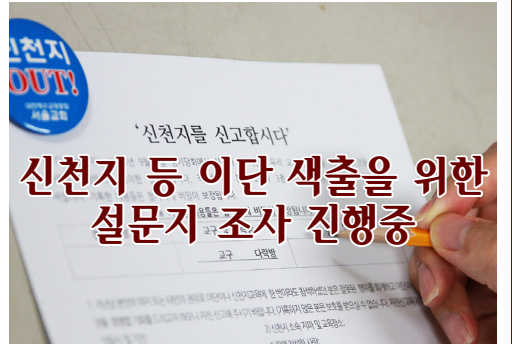
11월 17일(목) 오전 8:30~오후 5:40

2017 수능을 앞둔 수험생을 위한 수능 당일 기도 맞춰 열린다. 수험생을 자녀로 둔 학부모, 인근 주민 회가 11월 17일(목) 오전 8시 30분부터 시험 일정에 모두 참여 가능하다.



20사단 진중세례식

우리 교회 비전2020본부(본부장 최광성 장로) 19일(토) 거행된다. 교회에서 오전 10시 출발한다. 주관 육군 제20 기계화보병사단 진중세례식이 11월



신천지 이단 색출 설문지를 성도들은 상세히 읽어 본 후 해당 사항을 작성하여 본당 2층과 3층 뒤에 비치된 헌금함에 넣어주기 바란다. 기록한 내용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된다.

B.M.W.운동



이종운 원로목사의 제자의 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II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적 관점에서 사는 사람은 '세상은 나를 섬기기 위해 존재한다. 내가 만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경제적 안정은 고난으로부터 나를 지켜줄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해롭지 않는 한 모든 것이 가하다. '성공은 유명해지고 부와 쾌락과 권력의 길이다'라고 한다. 그러나 성경적 관점에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모든 것은 목적이 있다. 인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존재다. 돈은 상심자, 실패자, 죄, 질병, 재앙의 방패가 될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서 성공은 겸손과 타인을 섬기는 것이다'라고 생각한다. 이것이야말로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된 자의 고백이다.

1. 하나님의 뜻이 과연 선하고 기뻐하고 온전하니 우리 경험으로 증명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해 주기를 바란다. 어느 것이 선하고, 어느 것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또 어느 것이 온전한 뜻인지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결정할 수 있기를 원한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을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롬 12:2).

성경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고 가르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시작이다.

2. 하나님의 피조물과 시험

천사 : 우리는 성경에서 천사가 시험받는 얘기를 많이 듣지 못한다. 그러나 사탄에 의해 반역죄를 지어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인 경우가 있다.

아담 - 하와 :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과실로 하나님 명령을 지키는지 시험받았고, 결국 이 명령을 지키지 못하므로 인류전체가 심판과 죽음 아래 놓이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 : 피조물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뜻대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었다.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뜻대로'라고 하셨다.

그리스도인 : 그리스도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세상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 내가, 바로 지금, 반복적으로 일관성 있게 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므로 죽을 때까지 해야 한다.

결론

- *생각 없는 세대에서 마음을 새롭게 하라
-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대로 생각하도록 준비하고 성경적으로 행동하라
- *당신의 생각에 무엇이 영향을 주는지 돌아보라
-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이해하라
- *곤란한 문제에 대해서 당신의 생각을 명백히 하라
-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신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당신 자신을 변화 시켜라
- *그리스도인은 성경적 관점에서 세계관과 인생관을 키우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라
- *하나님을 위한 헌신된 삶이 무엇인지 생각하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롬 12:1).

(다음 주 계속)

11월 정기당회 또 파행

- 당회 결의없는 당회장의 일방적 인사임명은 무효이다 -

지난 9일 수요일 2부예배 후 정식으로 소집된 11월 정기당회는 시작 40여 분만에 당회장의 퇴실로 파행되었다.

내년도 섬김위원 임명 등 결의할 사항이 많은 상황에서 당회장은 당회원의 개회기도와 당회서기의 의사정족수 성원보고를 마친 후 전 회의록 채택 순서에 앞서 지난 10월까지 한시적으로 공개된 당회 공개에 대하여 계속 공개를 원하는 청원이 접수되었다며 이는 당회장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므로 당회를 공개하겠다고 했다. 이에 당회원들은 별도의 공간에서 방청할 수 있도록 한시적 공개를 결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정식 안건으로 상정하여 처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내년도 당회 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및 스테반회 및 권사회 조직까지 원로목사 시절부터 당회장이 단독으로 임명하여 왔으며 일방적인 조직을 발표하였다.

이에 다수 당회원들은 **장로를 비롯한 교회 모든 섬김위원은 당회 결의를 거쳐야 하고 원로목사 시절은 물론 박노철 목사 부임 이후에도 계속 교회규정에 따라 기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회장과 협의하여 당회에 보고하여 잠정안으로 허락 받은 후 하부조직까지 완성하여 일괄적으로 당회결의를 거쳐 확정하였던 것이므로** 이 역시 당회의안으로 상정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확정하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런 과정에서 당회장과 당회원들 사이에 논쟁이 일어나자 당회장은 당회를 진행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퇴장하여 지난 10월 정기당회에 이어 이번 11월 정기당회도 파행되었다.

또 안식년을 마친 하인선 장로에 대한 재시무투표와 당회장의 내년도 안식년에 따라 후속대책 마련을 위한 TF Team 구성에 대하여도 18명 당회원 이름으로 이미 정기당회 이전 당회안건으로 채택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당회장은 안식년규정에 '심각한 하자'가 발견되어 더 이상 안식년 규정에 따른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답변하였고, 당회장이 말하는 심각한 하자란 위 안식년규정은 공동의회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무효라고 말하는 것이고, 따라서 안식년을 마친 하인선 장로는 재시무투표 없이 언제든지 복귀하면 되고 순서에 따라 내년도 안식년을 가야 하는 오광환 장로는 안식년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당회장의 입장이었다.

이에 다수 장로들은 **안식년규정에 대하여 공동의회를 거쳤느냐에 관계없이 그동안 20년 가까이 성도들의 동의 하에 계속 시행하여 왔고 박노철 목사 역시 이미 규정에 따라 내년 10월 재시무투표를 받겠다고 수차례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신의 안식년 순서가 되자 갑자기 말을 바꾸어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했다.

결국 당회장은 독단적이고 일방적으로 결정한 인사명단만 발표하고 퇴장함으로써 결국 당회는 예정한 안건은 한 건도 다루지 못한 채 파행되었다.

이날 당회장이 발표한 명단은 당회의 허락이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어떤 유인물을 돌린 다거나 **혹시 강단에서 발표한다고 해도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이다.**

당회장과 당회장을 지지하는 일부 당회원들이 퇴장한 상태에서 나머지 24명의 당회원들은 그대로 남아 당회서기를 통하여 계속적으로 당회장의 참석을 요청하는 문자를 하였지만 당회장은 끝내 당회실에 복귀하지 않았다.

당회는 임시의장을 선출하여서라도 산적인 당회 안건을 처리하려 하였으나 비록 당회장이 일방적으로 퇴장하였지만 당회장도 없는 상태에서 계속 당회를 진행하는 것이 또 다른 법적분쟁으로 교회를 더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정식 당회대신 당회원간담회로 진행하며 정상적인 교회로 회복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을 의논하였고, 앞서 기획위원회에서 마련하여 당회의안으로 준비하였던 내년도 당회조직 및 스테반회와 권사회 조직을 자체 보고하였다.

서울교회 정관은 모든 섬김위원은 당회장이 아닌 의결기관인 당회가 임명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당회의안은 규정상 인사업무를 주관하는 기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회에 상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특히 당회소속기관인 스테반회나 권사회 회장단에 대하여도 교회규정은 물론 해당 기관 회칙에도 당회가 임명하도록 명기되어 있다.

【서울교회 정관】

제 5 조 (조직, 운영)

2. 당회의 직무

- 가. 교인의 신앙과 행위를 통찰
- 나. 교인의 입회와 퇴회
- 다. 예배와 성례 거행
- 라. 장로와 집사, 권사 임직
- 마. 교역자와 직원의 인선, 부서배정 및 섬김위원 임명
- 바. 헌금 수집하는 일
- 사. 권징하는 일
 - (권계, 견책, 수찬 정지, 제명, 출교)
- 아. 신령적 유익을 도모하여 각 기관을 감독
- 자. 노회에 총대를 파송하며 청원과 보고
- 차. 예배모범에 의거하여 예배의식을 전관하되 모든 회집 시간과 처소를 작성한다.
- 카. 교회에 속한 자산 (부동산)의 매입, 처분, 임대 및 유지 관리와 재정의 차입, 상환 등 제반 재정에 관한 일을 총괄한다. 단, 당회에서 재정위원회에 상기사항을 위임할 수 있으며 당회 위원은 당회장이 임명한다.

【서울교회 운영규정】

제 5 조 (기획위원회)

2. 인사업무

가. 본 교회에 시무 하게 하거나 시무 중에 있는 교역자 및 유급직원에 대한 다음과 같은 인사관리 업무를 관장한다.

- 1) **교역자** : 청빙, 전임, 사임, 휴무, 파송 및 추대에 관련된 사항을 당회장과 협의 처리한다.
- 2) **유급직원** : 채용, 승진, 전직, 파견, 휴직, 복직, 사직 및 징계에 관련된 사항
- 3) **조직** : 정원 및 인사에 대한 적절한 관리와 연구에 관한 사항
 - 나. 여전도사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 다. 본 교회의 기관 및 위원회의 섬김위원 임명 및 사임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며 그 절차는 아래와 같다.

제 17 조 (스테반회)

3. 조직

가. 임원

직책	정원	담당	임무
회장	1	집사	당회가 임명하고 본회를 대표하며 임원회의 의장이 되고 본회 모든 활동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한다.
부회장	2	집사	당회가 임명하고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업무를 대행한다.

제 18 조 (살림권사회, 제1, 2권사회)

3. 조직

가. 임원

직책	정원	담당	임무
회장	1	권사	당회가 임명하고 본 회를 대표하며 임원회의 의장이 되고 본회 모든 활동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한다.
부회장	1	권사	당회가 임명하고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업무를 대행한다.

【서울교회 스테반회 회칙】

제 5 조 (임원) 회장과 부회장은 당회에서 임명된 자로 하며, 총무, 부총무, 서기, 부서기, 회계, 부회계와 전임회장 중 위촉되는 감사는 회장이 임명하되 총회에서 인준한다.

【서울교회 살림 권사회 회칙】

제 7 조 (임원) 회장, 부회장은 당회가 임명하고 총무, 서기, 부서기, 회계, 부회계는 회장단이 임명하여 총회 동의를 얻는다.

【서울교회 1, 2 권사회 회칙】

제 7 조 (임원회)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두되 정·부회장은 당회가 임명한다. 다른 임원은 정·부회장의 추천으로 총회인준을 받은 자로 한다.

수험생을 위한 기도회

지난 시간에 최선을 다한 수능생들에게



박주현 집사
(고등부 교사)

열심히 최선을 다해 달려온 수능생들에게 하나님의 큰 축복의 손길이 임하여 같고 닳은 각자의 노력이 고스란히 실력으로 열매 맺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많은 선택을 하고 또 선택을 받기도 합니다. 수능 시험은 그 중에서도 아주 큰 선택의 관문 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내가 그동안 공부한 10여년의 세월을 하루에 그것도 정해진 몇 시간에 의해 결정지어지는 것이지만

우리는 이 시험을 통하여 더 높은 계단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연어는 쉬운 길을 두고 폭포를 거슬러 올라갑니다. 거슬러 오르다 지쳐서 나오기 되기도 하지만 낙오를 두려워 하지 않고 힘든 길을 선택해서 건강한 알을 낳는 길을 헤엄쳐 가듯이 인간도 쉬운 길 앞에서 만족하지 않고 보람 있고 더 나은 세계에 도전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치루는 수능 시험이 아닐까 하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힘들어 공부하는 그 시간에 여러분의 부모님과 선생님, 그리고 친척, 형제는 또 다른

수능생이 되어 늘 기도하고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새벽마다 통성으로 수능생을 위한 기도가 각 교회에서 하늘에 올려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수능을 위해 준비하는데 강도는 다르지만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에게 누군가가 배경이 되어 주는 것이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그 배경이 하나님이십니다. 어렵고 두려울 때 힘이 되고, 막막하고 답답할 때 앞길을 열어 주는 빛이 됩니다.

수능생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16장 9절 말씀입니다. 나는 최선을 다해서 하면 됩니다. 내가 생각해서 "더 이상은 못해"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야"라고 할 때까지 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내 갈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가 힘이 들고 어려울 때 담대함과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수능을 위해 편안한 마음을 갖기 바랍니다.



33학기 살롬경로대학을 마치며

제 33학기 살롬경로대학 잘 마쳤습니다



한 내용을 주님께 자랑하는 종강과 발표회도 가짐으로 행함을 실천하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학과진행에 대한 사진, 동영상 촬영 후, 당일 점심시간 동안 8층 식당에서 상영을 하는데 어르신들은 뜻밖에도 체조와 댄스와 같은 경쾌한 몸동작을 선호하시름을 보게 되었습니다.

표정희 선생님께서 진행해주신 "어르신 건강체조"에서는 강사선생님의 열성과 능력에 참석하신 어르신 모두가 함께 하심으로 어르신들의 표정에서 즐거움과 자신감을 읽을 수 있었고 1시간동안 진행된 특강 후, 힘들다 하신 분이 없었음은 지난 봄학기 야외예배때 북한강 잔디밭에서 함께 했던 힐링댄스와 함께 열의도가 너무 높았음이 증명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렇듯 우리 어르신들께 건강하심과 흐트러지지 않는 정신을 주시는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리오며 내년 34학기때도 더욱 건강하신 모습으로 섬길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올해도 어르신들 섬김에 함께해주신 14분의 선생님들의 수고와 헌신을 주님께서 기억해주시길 소원합니다.

물심양면으로 격려와 후원을 해주시는 교회와 교우분들께 감사함을 전하여 모든 영광을 주님께 바칩니다.



윤명구 집사
(살롬경로대학 총무)

지난 9월22일(목) 제1강을 개강한 이래, 11월10일(목) 제8강을 끝으로 살롬경로대학 가을학기(33학기)를 마치면서 종강과 발표회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쁜 섬김을 체험하였습니다.

살롬경로대학은 봄학기(32학기) 때보다 30% 정도 줄어든 50여분(교사포함)의 어르신들께서는 경건회(서명철 목사님)와 특별강좌를 통해 건강, 위생, 취미생활등의 강의후, 본인의 희망에 따라 음악반, 손뜨개작품반, 중국어회화반, 건강체육반등 4개반별로 학과별 학습을 진행하였으며, 학기 동안 학과반원들과 함께 배우고 터득

동정

- 이종윤 원로목사는 11월16일(수) 한국로잔위원회 모임에 참석한다. 11월19일(토) 종교개혁500기념사업회 학술대회준비모임을 소집한다.
- 박정선 은퇴장로(전단국대 음대학장)은 11월 15일(화) 7시 30분 세종M 씨어터, "우리 시, 우리 노래" 가곡발표 16일(수) 7시 30분 "주님의 교회에서 "한국찬송가 작가 총연합회주최 신작 찬송가 발표회에서 신작 찬송가 2곡을 발표
- 주일식당방사: 바울선교회 (11. 13) 베드로선교회 (11. 20)
- 금주의 식사제공 : 교회제공

서울 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한 해를 돌아보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추수감사주일(11월 20일)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2. 수능(11월 17일)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들에게 건강과 믿음과 지혜를 주셔서 목표를 향하여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3. 20사단 진중세례식(11월 19일)을 통하여 군복음화와 민족복음화의 비전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 예배 및 집회

■ 교회 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구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본 당 II, III, IV 층
	II 부 예 배 (영어동시통역)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15분	
수 요 예 배	젊은이 예배	오후 2시	본 당 II, III 층
	I 부 예 배	오전 11시	
	II 부 예 배	오후 7시	
새 벽 예 배	오전 5시 30분(매일)	본 당 II 층	
금 요 기 도 회	오후 8시		

